



새롭게 감시다

홍 무 광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98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설레이는 가슴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창립 150주년 기념 행사로 이루어질 많은 활동과, 대관장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질 10월의 「한국 지역 대회」, 그후에 있을 동경 신진 헌납 등....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 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해서, 우리의 가슴은 벌써부터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1952년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이 한국을 주님의 땅으로 헌납했을 때만하여도 이 땅에서의 예배는 몇몇 외국 군인 형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읍니다만, 그후 특히 1978년 11월 12일 기쁘씨 장로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재헌납 이후 이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73곳의 예배당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는 이 세상이 소음으로 가득 차더라도 주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화음과 힘찬 음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거나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들 손으로 이루어진 전국의 예배당과 건축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예배당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고, 더욱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쌓은 많은 것들을 반석으로 하여 올해에 있을 우리의 여러 활동과 모임을 성공시켜야만 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를 마감하는 성탄절 즈음에는 한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 -한해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이끌기 위해-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몇 가지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가족기도가 그것이며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모여 경전의 교훈을 우리의 생활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한 「가정의 밤」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가정 복음과 자매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가정 방음이 그것이며 경전을 매일처럼 상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고 잠깐의 준비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충실하게 준행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알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장 21절)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다져진 땅에 물이 괴듯이, 강한 확신이어서 부드러운 표정과 몸짓으로도 그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부정해 보더라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의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하여 우리는 다시 그의 품에 감사할 수 밖에 없듯이, 우리의 의욕의 한해를 한결같이 새로운 노력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는 한 인상 지역 대표

지난 1979년 11월 24일과 25일, 서울 제 4와드에서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의 감리로 열렸다. 토요일 모임과 일요일 모임으로 나누어서 대회를 가졌는데 토요일 모임에서 신권 역원들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한 인상 장로는 실제로 집에서 재배한 토마토, 가지 등을 실례로 들어서 비축 프로그램을 강조하였으며 물질적인 준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화양 와드의 박 광식 감독과 잠실 와드의 권 찬태 감독은 처음 참석한 연차 대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총관리 역원들의 영적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과 한 인상 장로의 배려로 김볼 대관장님을 만나본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 하였다.

최 육환 스테이크 부장은 회원들에게 더 부지런히 주님의 사업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선교 사업을 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무대까지 꽉찬 성도들이 모두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끝냈다.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1979년 11월 10일과 11일, 서울 제 1와드에서 서울 동 스테이크가 탄생된 후 처음으로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는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감리했다.

일요일 일반 총회에서 박 재암 형제, 김남영 형제, 고 흥만 형제가 고등 평의원으로, 구 본동 형제가 도봉 지부장으로 지지를 받았다. 특히 귀국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김 중균 축복사는 동 스테이크 축복사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회원이 기뻐하였다.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은 시온의 스테이크의 의미를 교리와 성약 82편 14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시온의 스테이크의 경계를 넓히고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말씀하는 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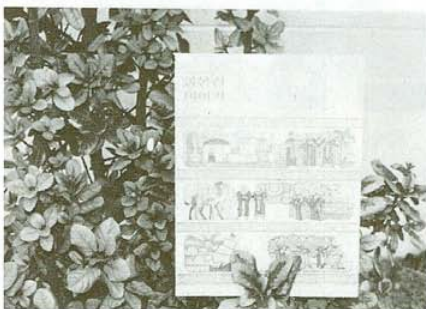
신권 역원을 지지하는 성도들

신간 서적 안내

초보자를 위한 물문경 이야기

“초보자를 위한 물문경 이야기”는 물문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이야기와 역사적인 이야기를 천연색 그림으로 재미있고 유익하게 엮은 책이다. 학생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암기하도록 권하고 싶은 책이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학생이나 초보자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어린 자녀에게 물문경을 이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회원에게 소개하면 물문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

값 : 1,000원



내 마음의 노래

“다 함께 노래를”, “어린이를 위한 노래 모음”에 이어서 “내 마음의 노래”를 출간하였다. 본 노래집은 교회 모임이나 가족 모임, 기타 특별한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찬식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신앙과 기쁨의 노래, 주님에 대한 봉사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말일성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상황에서 오는 기쁨을 표현한 노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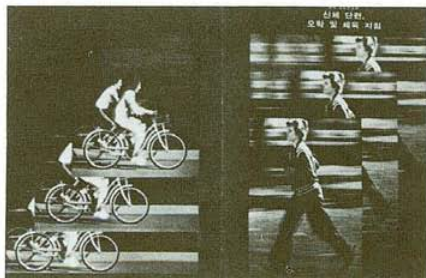
값 : 700원



신체 단련 오락 및 체육 지침

본서는 청년회 상호부조회 자매가 사용하며, 모든 청년의 생활 단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준다. 청년회 상호부조회의 청년반 자매와 성임 지도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체력 강화는 물론 유연성, 지구력 등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다. 수영, 테니스, 오락 등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값 : 500원



새로운 회원을 위한 가정 복음 교육 공과

본 책자는 새로 침례받은 회원이 말일성도의 생활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이 공과를 2개월 이내에 가르쳐야 한다. 복음 선교사처럼 가정 복음 교사도 새로운 회원에게 온정과 친절과 친밀한 태도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신권 지도자와 가정 복음 교사가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가정 복음 교사의 소개, 가정 생활, 말일성도의 생활 방법, 교회에서의 봉사, 교회의 자원 그리고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 등의 6개 공과로 되어있다.

값 : 250원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

본서는 교사로서의 부름을 수행할 때 영적인 면과 교수법의 두 가지 면에서 그를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서는 현임 역원과 교회 지도자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모든 현임 역원 교재를 대신한다.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은 기도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짧은 인용문, 발췌문, 제언도 포함되어 있다.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기초 과정"은 그대로 사용한다.

값 : 1,000원



신임 감독/지부장단 소개

포항 지부장단

지 부 장 : 하 현 석 형제
제 1 보좌 : 배 태 호 형제
제 2 보좌 : 장 춘 근 형제
서 기 : 정 의 근 형제
보조서기 : 김 용 구 형제

남광주 지부장단

지 부 장 : 임 중 하 형제
제 1 보좌 : 김 태 화 형제
제 2 보좌 : 홍 한 의 형제
서 기 : 이 성 남 형제
장로 정원회장 : 김 기 준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바자회 성료

1979년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제1와드에서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주최로 바자회가 열렸다. 8개 와드 지부 자매들이 정성껏 준비한 700여점의 작품과 음식이 판매되었는데, 서울 스테이크, 북 스테이크의 회원들도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복지 선교사들의 과일, 야채 등의 건조법의 전시는 이채로웠다. 이번 바자회는 가족 및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비축 방법을 설명하는 자매 선교사



남 광주 지부장단



전열 좌: 지부장 임 중하 형제
전열 우: 제1보좌 김 태화 형제
2열 좌: 제2보좌 홍 한의 형제
2열 중앙: 장로 정원희장 김 기준 형제
2열 우: 서기 이 성남 형제

신입생 모집

대학부 통신 과정

- ① 입학 자격: 고졸 이상의 모든 회원 및 구도자(단, 감독/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제출 서류: 1. 본교 소정 양식의 입학 원서 1통
2. 주민 등록 초본 1통
(입학 후 2개월 이내)
- ③ 원서 접수처: 각 와드/지부 및 신학 연구원 ☎ (서울) 33-1347
(광주) 2-0517
(부산) 43-2623
- ④ 원서 교부 일시: 1979년 11월 12~12월 30일까지
- ⑤ 접수 마감: 1979년 12월 30일
- ⑥ 교 재: 복음 전도(1년분 500원)
- ⑦ 교재 구입처: 신학 연구원
- ※ 특전: 1. 본 신학 연구원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 교회 산하 대학에 입학할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함
2. 일체의 수업료는 면제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신학 연구원